

###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엊그제 이정현 의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당선 시켜 줘서 고맙다”고 했다. 난 오히려 “당신이 당선돼 주어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다.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맨 처음 그의 고향 출마를 적극 권유했고 이어 그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칼럼을 내보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요즘 주위에서 ‘똥자리를 깔아도 좋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

두 번의 칼럼이 얼마나 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칼럼을 쓴 당사자로서 고마운 것은 모두들 설마 하는 가운데 나의 예상대로 그가 당선돼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당선은 이정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꿀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당선이 고마웠다.

대이변이라고 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했다. 그만큼 그의 당선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막판 여론조사에서 앞선다는 소식에도 설마 했다. 고민을 하다가도 투표장에 들어서면 결국 2번을 찍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

그럼에도 그는 기어이 당선되고야 말았다. 뒤늦게 사람들은 그의 승리 요인을 분석하느라 부산을 떠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진

정성이 유권자들에게 통했다는 점이다.

그가 출마하면서 내놓은 말은 ‘지역구도 타파’였다. 누군가 지역구도라는 장벽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또 다른 사람이 뚫고 또 뚫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지역구도의 엄청난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떠올렸다.

#### 26년 만에 이룬 ‘선거 혁명’

어리석은 노인(愚公)이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을 옮겼다는 이야기다. 지게에 흙을 지고 바다에 갔다 버리고 돌아오는 데만 꼬박 1년. 이웃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을 것이다. 머지않아 죽을 텐데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이에 노인이 말한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계속 할 것이요. 그동안 산은 깎여 나가겠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 아니겠소.”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다시 고사(故事)의 결말을 보자. 노인의 무모한 시도로 산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산신이 상제(上帝 : 하느님)에게

달려가 호소한다. 이에 상제는 즉시 산을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다.

이정현은 우공을 닮았다. 우직하게 도전하고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놓았다. 산을 구한 상제의 역할을 한 이는 당연히 위대한 순천·곡성 주민일 테고, ‘수직전석’(水滴穿石)이라 했다. 멀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낸다. 무슨 일이든지 끈기로 계속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평생 수학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한 가난한 사골 출신, 공채 출신만 알아주던 집권당 당료사회에서 비공채, 그것도 호남 출신의 비주류, 그가 ‘아권의 텃밭’에 ‘여당의 깃발’을 꽂았다. 광주·전남에서 보수당 출신이 당선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가히 ‘선거 혁명’이라 하겠다. 그의 승리에는 ‘감성 선거 전략’도 한몫했다.

“말 소절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준비물 값 2000원!” 하고 손을 내미는데 제 주머니에 그 2000원이 없어 ‘엄마한테 달라라’ 하고는 집을 나와 봉천동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출근하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2 어느 가을날 새벽 2시 자다가 인격체에 깨어보니 어머니는 달빛 아래 마당에서 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낮에 타작하다 마당 흙속에 박힌 콩을 줌과 계셨습니다. ‘이렇게라

도 해야 너희 형제들 학비를 대제!’ 라는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 배개가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강연이나 연설 때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목이 잠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뱃속까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의 심정을 잘 압니다. 비주류를 대변하겠습니다. 저, 알하고 싶습니다. 꼭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선거 기간 중에 그가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암 투병 중인 아내가 선거를 돕는다는 소식도 입소문을 탔다.

#### 지역구도 타파와 지역발전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는 다소 허황한 공약도 선거 전략으로서는 유효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정현은 ‘예산 지킴이’로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었다.

과거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이 지역 출신 야당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예결위원장 이정현만은 달랐다. 의회기관 한쪽 자리를 내주면서 해당 부처에 전화를 해 주었다. 직접 장관을 찾아가 자신의 일처럼 거들어 주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지금도 이를 잊지 못한다. 이는 ‘예

산 폭탄’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됐다.

아무튼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이라는 실리에 주민들은 차츰 마음의 문을 열었다. 광주 사람들마저 일부러 순천에 가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선거 초기의 ‘언더도그 효과’(underdog effect : 동등표가 물리는 현상)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 대세에 따라가는 현상)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죽기 살기로 사지(死地)에 뛰어들었고 결국 살아 나왔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必死即生 必生即死) 충무공 이순신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을 그는 운문으로 보여 주었다.

이정현은 예전에도 늘 ‘정부·여당의 호남 포기 전략 포기’를 역설하곤 했다. 이순신이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있을 수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무릇 정수란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영화 ‘명량’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임금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싸우느냐”는 아들의 물음에 대한 이순신의 답이다. 대통령의 복심(復心)으로 불렀던 이정현이 이제 ‘왕의 남자’에서 ‘호남의 남자’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허백련 화실 ‘춘설헌’ 보존상태 심각

### 문화재청 “광주·전남 119개 문화재 보수 시급”

의재 허백련 선생이 화실로 사용했던 광주시지정문화재 제5호 춘설헌(사진)의 보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7일 발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19개 문화재의 보수가 급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보와 보물 등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점검, 보존상태에 따라 A~F등급으로 분류했다. D~F등급은 구조적 결함 등으로 정기·상시 모니터링과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광주는 전체 58개 문화재 중 5개가

보수와 주의 관찰이 필요한 D, E등급을 받았다.

옛 전남도청 회의실(시지정문화재 제6호·E)은 조성사업과 관련해 보수작업이 진행중이고, 춘설헌(·5호·E)은 지붕기와 이완으로 누수 및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피야외 조각당(·27호·D)은 벽체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증심사 석조보살입상(·14호·D)은 머리에서 가슴과 다리 이어지는 부분에 균열이 갔다. 또 양과동정(문화재자료 12호·D)은 기둥이 부식되고 측면이 처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841개 문화재 중 114개가 D~F등급으로 분류됐다.

구례 사도리 삼층석탑, 백양사 극락보전, 천은사 극락보전, 담양 연동사지 삼층석탑, 신안 흑산진리 지석묘군, 화순 운주사 거북바위 오층석탑, 곡성 당동리 석조여래좌상,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등이 이 등급에 해당한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7393개의 문화재 중 22.8%인 1683개에서 구조적 결함이나 즉각적인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200만명 학살 ‘킬링 필드’ 전범 35년만의 단죄

### 80대 두명에 종신형

강제노역과 학살로 약 200만명이 희생된 캄보디아 ‘킬링 필드’의 핵심 전범 2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됐다.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는 7일 반인륜 범죄로 기소된 누온 체아(88) 당시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3) 전 국가주석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크메르루주 정권이 베트남 군의 공세로 붕괴된 지 35년 만이다.

전범재판소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TV 생중계가 이뤄지는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누온 체아 등의 강제이주 등 반인륜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권기인 지난 1975~1979년 사이에 강제 이주와 숙청, 학살 등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내린 판결은 강제이주 등 반인륜 범죄 혐의에 대한 것이다.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은 올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범재판소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에 대해 종신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크메르루주 지도부 가운데 이영 사리 전 외교장관은 지난해 초 자병으로 사망했고, 치매를 앓는 령 티리트 당시 사회부 장관은 재판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배



7일(현지시간) 프놈펜에서 열린 공판에서 캄보디아 ‘킬링 필드’의 핵심 전범 누온 체아(88)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3) 전 국가주석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된 직후 킬링필드 생존자 두 명이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했다.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는 2006년 출범 이래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의 개입과 재판관들의 잇단 사퇴, 재정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직원들의 파업으로 여러 차례 심리를 중단해

재판이 지연됐다. 이에 앞서 전범재판소는 크메르루주 체제 하에서 1만7000여명의 학살과 고문을 자행한 수용소 S-21 책임자 카잉 구역 에야브 소장에 대해 지난 2010년 35년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기)	광주교육대학교(10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4. 9. 5(금)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2014. 9. 5(금) 14:10(초급반) ·토요일 오전반:2014. 9. 6(토) 09: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2014. 9. 6(토) 14:10(특급반)	·월요일 오전반:2014. 9. 1(월) 14:10(초급반) ·월 목 야간반:2014. 9. 1(월) 19:00(중급반) ·목요일 오전반:2014. 9. 4(목) 09:10(고급반) ·토요일 오후반:2014. 9. 6(토) 14:10(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목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b>광주여자대학교</b>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15길 10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b>광주교육대학교</b>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15길 10 http://www.gnue.ac.kr/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서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8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2013년 금주자선 2,607억원  
당기순이익 1위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5.0% (현재 장외배당금 1년 3%)

이영 안두경 2013년 금주자선 2,607억원  
전무 하헌준 당기순이익 1위 15억3천만원

본원 671-5000 영림지점 652-9203 주유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